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vol.645, August 2020

08



국회보

[표지이야기]

빛 광(光), 돌아올 복(復)
8월은 '빛이 돌아온'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국권 회복의 빛을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열사들을 되새겨봅니다.
굳건한 정신을 받들어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45, August 202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8월 3일

발행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문화소통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장대섭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위원(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상현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문화소통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아(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서기정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제21대국회 개원식 개최

제21대국회 개원사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열려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국회 소속기관 업무보고 받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제21대국회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특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구조 변화 점검

18 성장에서 행복으로 국정운영 목표 전환해야_ 김미곤

20 비대면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의 부상_ 정은미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속에서 외교를 만나다_ 함상욱

24 에듀테크 보급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확대될 것_ 조상식

26 문화예술인·단체 지원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 시급_ 양혜원

28 길에서 길을 찾다_ 진성준 의원

한강 절경을 품은 강서, 국제적 경제판문도시를 꿈꾸다

32 칭찬합시다_ 이현승 의원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에 힘쓸 것”

34 의원의 좌우명_ 이용빈 의원

“가난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정치”



- 36 나의 인생 나의 정치_장혜영 의원
“편견·차별 없는 세상 만들고 싶어”
- 38 일하는 국회·공부하는 국회
그린뉴딜, 코로나19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45 국회스케치
- 46 법률 시대를 읽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차인순
- 48 법 시행 그후
‘밀산업 육성법’
- 50 주재관 리포트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와 형법개정안 논란_윤성민
- 52 만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54 위원회는 지금
국회, 통일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체육계 인권침해 청문회도 열려
- 58 국회 뉴스
- 68 국회 사람들
알고 보니, 나는 천생 사서였다_신경숙
- 70 경제이야기
양극화 시대를 즐겁게 살아내는 법_이진우
- 72 청년에게 듣는다
열려 있는 청년들의 문화활동 플랫폼, 청년문화허브_정두용
- 74 과학을 읽다
블로장생의 꿈이 이루어진다면_고호관
- 76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청동기시대의 정치경제학... 강화 부근리 고인돌_이광표
- 80 역사 속 길을 찾아
황희와 이이의 이야기가 깃든 반구정길을 걷다_장태동
- 84 생활 속 우리말글
점사가 붙어서 된 말 바로 쓰기_김형주
- 85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86 편집 후기
낮선 여름_이춘규

제21대국회 개원식 개최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제21대국회 개원식이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개원식은 국민의례, 여야 국회의원 선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원사, 문재인 대통령

의 개원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로 개원사를 시작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다”며 “K-팝, K-방역에 이어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세계의 표준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원들을 향해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를 지켜달라”며 “국민 먼저, 국익 먼저, 국회가 먼저”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21대국회, ‘협치의 시대’ 열어야”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원사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제21대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여야 지도부 등과 환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로 늘린다거나 경제회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그러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노사정



개원식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등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형 감사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상희 국회부의장

대타협으로 이뤄지도록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한 뒤 “각 당 대표님들을 청와대에 모실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한 형식을 가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담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

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자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을 선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7월 20일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 2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함께 ‘국민의 국회’를 만듭시다

제21대국회 개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귀빈 여러분!

제21대국회가 뒤늦게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21대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의 큰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돌파할 국회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증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국제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탈동조화 현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의 양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초연결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위기관리 능력은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와 그 가치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근본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사구시(實事求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다.

是)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는 세계질서를 바꿀 것입니다. 코로나의 조기 종식, 경제난국의 돌파, 남과 북의 신뢰 회복, 국가 개조 차원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모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막중한 임무입니다.

소통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1대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

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21대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제21대국회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국민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든든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미래 비전을 만드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에 걸린 제21대국회 개원 기념 현수막

상시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도록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365일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명사적 전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국가, 미래를 제시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남북 평화의 구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가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제21대국회는 용광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그런 국회의 그 첫걸음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공감대를 만들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타협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소통입니다.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이라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K-민주주의를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 이를 극복해낸 훌륭한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방역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K-팝, 영화 ‘기생충’,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차례입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의 인식도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세계의 표준으로 발전시켜나갑시다. K-민주주의를 향해나갑시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집시다. 제21대국회는 다양한 가치의 연대, 정책연대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급변하는 세계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우리 국회가 함께 짊어지고 덜어주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강국, 보건강국으로 우리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갑시다.

국회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 세우는 일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도를 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가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길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지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21대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국회의장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조정과 중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21대국회가 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를 지켜주십시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국회가 먼저입니다. 당에서의 활동도, 지역구 활동도 그다음이 돼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4년 뒤, 임기를 마칠 때 제21대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그 길로 담대히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열려



7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월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경축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KBS 김윤지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경축식은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국민훈장 수여, 경축사, 제헌헌법 전문 낭독, 제헌절 노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경축식에서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김용채 전 의원(제7대, 제9대, 제12대, 제13대)과 김영도 전 의원(제13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을 전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이제 시

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0대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또 제21대국회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열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그는 “남과 북이



7월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21대국회 전반기 신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국회 간부들과 함께 순국선열에 참배하고 있다.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남과 북의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용광로 같은 국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4차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축 공연을 생략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 또 좌석 간격을 1.8m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전반기 신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박병석 의장은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 받들어 내일을 여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참석자들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으로 이동해 참배를 마친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는 원 팀 국회” 주문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국회 소속기관 업무보고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7월 31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소속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31일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배우는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을 뿐’이라는 영화배우 황정민의 수상소감을 언급하며 “국회 직원들도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주연을 만들어내는 핵심 스태프라

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 부서 간 칸막이는 과감히 제거하고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 팀(One-team)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21대국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세종 국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되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국

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제21대국회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①품격있는 국회 ②일 잘하는 국회 ③신뢰받는 국회라는 3대 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 ‘혁신’, ‘소통’의 핵심가치별 세부 추진 과제들을 보고했다. 🍌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제21대국회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하고 있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24일 국회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열어 19개 위원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입법과제

와 현안을 보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전체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 측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상임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밀

집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위원회의 입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검토보고서 배부 기한(상정일 48시간 전) 준수와 검토보고서 표준 양식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상수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개선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는 9월 1일 개최될 예정이다. 🍀



특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구조 변화 점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및 상황을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화두는 비대면·비접촉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구조 변화를 분야별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과제도 알아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성장에서 행복으로 국정운영 목표 전환해야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비대면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의 부상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속에서 외교를 만나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에듀테크 보급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확대될 것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문화예술인·단체 지원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 시급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성장에서 행복으로 국정운영 목표 전환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가을에 대유행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가 풍토병(endemic)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지도 몇 달이 됐다. 풍토병이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새로운 정상상태 즉, 뉴 노멀(new normal)이 된다. 그러므로 뉴 노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한 점검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첫 단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국가 간 여행 축소 등이 경제위기를 초래한다. 다음 단계는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자살·이혼·가출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하는 공동체 위기로 나타난다. 이때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분출하고, 전문가들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한다. 작금의 코로나19 상황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등 재난은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변혁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중세 말 페스트는 유럽인구의 태반, 특히 농노와 하층민을 많이 희생시켜 농노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 근대로 이행하는 계기가 됐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에 의하면,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부유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인구의 0.5-1%가 사망했지만, 가난한 인도의 인구는 6%가 사망했다고 한다.



김미곤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재난의 불평등성

재난의 불평등성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미국인 사망자의 70%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기사도 있었다. 다비디 푸르체리 IMF 연구부장 등의 사스 등 5개 전염병 사례 연구(‘전염병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더 뒤처지게 하는가’)에서도 ‘유행 5년 뒤 지니계수가 1.5% 상승했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용에 별 영향이 없는 반면, 기본 교육수준만 받은 사람은 5년 뒤 고용이 5% 가까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자살, 이혼 등의 사회병리 현상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감염병 등 재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종 인수공통감염병과 기후변화가 모두 ‘숲의 파괴’에서 출발했다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의 주장과, 팬데믹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라는 노엄 촘스키 교수의 언급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파괴로 기후변화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은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다.

다음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련의 사회구조 변화가 공동체(특히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련의 사회구조 변화는 비대면(untact)과 맥을 같이한다. 예컨대, 물리적 거리 두기, 비대면 산업 활성화, 재택근무 확산 등 노동환경의 변화, 온라인 유통 확산, 자동화 확산, 온라인 강의 확대 및 사이버교육 제도화, 대중문화사업 축소 및

개인문화 확대, 위생·안전·환경을 위한 국가 개입 허용과 이에 따른 ‘빅브라더’ 우려, 원격진료 확대, 사회복지 시설 폐쇄 및 이용제한 등이 비대면과 관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과 비대면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셀프 계산대가 취약계층의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상병수당(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부가급여)제도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택배 노동자 등은 아파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온라인 강의에서도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성장지상주의가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다시 팬데믹으로 이어졌음을 고려하면 국정운영의 목표를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었다. 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 내외지만, 주요한 사회지표와 환경지표는 나쁜 수준이다.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반면 출산율은 최저수준이다. 이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식은 환경관련 위험, 경제 불안, 건강 불안, 사회생활 불안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비대면 제품과 플랫폼 서비스의 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화는 비대면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1월 2천만 명에 불과하던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의 이용자는 4월 초에 2억 명을 넘어섰으며, 보안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3억 명을 돌파해 원격근무를 위한 디바이스까지 사업영역을 넓혔다. 급격한 이용자 확대가 잠재된 기술적 결함을 노출시켰지만 기술적 측면이나 서비스 방식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원격근무 등의 비대면 비즈니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기술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기술,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증강 현실 기술, 대용량 통신기술, 개인맞춤형 모빌리티,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 협동로봇,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관리기술, 드론 기반 3차원 영상화기술, 화상보안통신기술, 동형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을 선정했다. 기술개발 혹은 상용화 초기이던 기술과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하는 ‘인스타카트’가 30만 명, ‘아마존’이 18만 명의 고용을 늘렸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전자제품, 가공식품, 정보통신서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산업연구원



비스,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늘어났다.

‘K-방역’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기의 수출이 늘어났으며, 5G(5세대 이동통신) 등 비대면 산업, 가공식품 등 홈코노미 제품이 가세하면서 코로나 시대 신수출 7대 상품군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의 생산과 교역의 지연 혹은 중단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전 세계로 파급·전이되면서 글로벌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적 위험 이외에도 생물학적 위험, 국가별 대응수준과 불확실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용이나 시장 이외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전략 부문의 공급망 자립화와 자국 내 생산기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별 혹은 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신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European First’를 표방하면서 기술 주권(technology sovereignty) 확립과 리쇼어링(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리경제학자 장 폴 로드리그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예상되는데, 생필품의 국산화와 함께 첨단제품의 글로벌화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생태계의 복원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주력해야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일방적인 경제민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재편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 산업과 유망기술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해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비대면 산업과 원격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고령화, 만성질환에 대응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장비 및 서비스 분야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항바이러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메디컬 섬유, 의료용 소재, 공기정화, 건강 가전 등 헬스케어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채택근무 확대, 생활방식 변화로 스마트가전, 가정식 대체식품(Home Meal Replacement) 등 경험소비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는 품목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비대면 비즈니스의 성장에 대응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홈 서비스, 통신 인프라 등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체험적 마케팅 플랫폼,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역량을 높여야 한다.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증가세가 높아지는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기간산업에서도 신제품의 생산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속에서 외교를 만나다

인간에게 국경은 있지만, 바이러스에 국경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그간 외교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외교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교는 방향, 주제, 방식 측면에서 3가지의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각국은 전면적 입국금지 또는 국경 폐쇄 등 조치를 통해 국가 간 장벽을 세웠고, 바이러스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혐오가 확산됐다. 그러나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의 특성상 전 지구적 코로나19 종식이 있을 때까지 그 어느 국가도 안전할 수 없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격언처럼, 전 지구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감염병 대응의 특성상 국제적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이러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3월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방역경험과 데이터 공유,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의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이러한 기초 아래,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한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중심으로 9차례에 걸친 웹 세미나를 열어 약 118개국에 우리의 모범적인 방역 경험을 공유했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참여를 통해 국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의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를 통해 다양한 양·다자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보건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슈가 주요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간 국가 간 외교의 주요 관심 사안은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지역 분쟁, 테러 등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문제와 같은 일상 속 이슈가 주요 외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결의를 채택했으며, 동 이슈에 관한 G20,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처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신안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등 주요 국제기구 차원의 보건협력 관련 우호 그룹 출범을 주도했으며, 내년 4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안보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 분야 기술, 의료 역량 강화 논의를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보건 취약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진행 중으로, 총 360억 원 규모의 무상원조 사업인 ‘코로나19 대응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중점 지원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과 공간 제약 극복하는 비대면 외교

셋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untact) 외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국가 간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외교 활동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언제 어디서든 외교 활동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G20특별화상정상회의’, 4월 ‘아세안(ASEAN)+3 특별화상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지난 6월에는 ‘한-EU 화상정상회담’이 ‘대면과 같은 비대면 정상회담’을 표방해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1월부터 지역별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20회 이상 개최해왔고, 지난 7월에는 최초로 전(全) 재외공관장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186명의 재외공관장과 동시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 아래, 일상 속의 주제를 외교의 주요 관심사로 논의하고, 국가 간 비대면 협의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외교도 이러한 ‘외교의 일상화’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보건안보대사’ 임명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 외교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 환경 등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비대면 외교의 기초가 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교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국회, 학계 및 관련 기관 간의 깊이 있는 논의와 폭넓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에듀테크 보급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확대될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명사적 급변 상황이 우리 교육에 끼칠 영향을 다방면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우선 에듀테크(EduTech,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기존의 다양한 교육 매체가 원격교육 부문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현재 초·중·고 및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한계 또한 분명해진 만큼 더욱 진일보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및 홀로그램(Hologram) 기법의 교육적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원격교육의 효과나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이를테면 ‘원격교육이 교실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원격교육은 여전히 교육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관점 간의 대립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통적인 교육관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염병의 등장을 대비하는 탄력적인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면서 학교교육과 홈스쿨링의 공존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두 교육방식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정립되도록 법적, 교육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인격적 만남의 쇠퇴로 전통적인 ‘교육적 관계’가 사물화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온라인 강의의 확대가 학교 내 관계의 익명성을 강화해 고유한 학교교육의 목적인 인성 및 가치교육을 위해



조상식 교수
동국대 교육학과



롭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학교공동체 존립근거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이에 민주시민 교육을 비롯한 가치내면화와 관련된 학교교육의 과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그 대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에듀테크의 보급은 디지털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로 인해 학습 알고리즘이 단순화되고 학습내용의 선정 및 조직, 교육평가 등에서 질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학교교육이 교육내용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변화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다. 성인의 전 주기적 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성격이 강화되는 동시에 학위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더욱이 대학졸업자들을 받아주는 노동시장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우선 현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수업 확대는 필연적으로 교육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드세질 것이고 등록금 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학은 새로운 재정 수입원이 필요할 것이고 교육행정당국에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때마침 지난 7월 2일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원격수업을 ‘뉴 노멀(New Normal)’로 정립해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현행 고등교육법이 원격수업 비중(대학별 전체 강의 총량 기준) 최대 20% 제한을 풀어주면서 대학이 정하는 범

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내년부터는 학부의 경우,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체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원격수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대학은 재교육 및 성인교육 방면에서의 원격교육을 확대하면서 재원 확충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교육부는 그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화답을 한 셈이다.

전통적인 학문구조 붕괴 가속화될 것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고등교육 분야가 겪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노동시장과의 부조화로 인해 전통적인 학문구조의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학교육이 융·복합적이고 초학제적인 학사구조의 구축과 운영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의 상황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기에 그 공존이 가능한가 걱정이다. 이에 대학교육이 극단적인 단기 숙련노동 양성기관으로 급격하게 전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제도로써 대학의 존립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품는 담론도 득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고등교육을 선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지금까지의 전망과 진단이 다소 암울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뉴 노멀 휴지기’는 차분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미래교육’을 탐색·실험·검증·수정·재검증할 수 있다. 🏠

문화예술인·단체 지원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 시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직접적 대면’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창작, 제작, 유통, 소비, 향유 등 문화예술 생태계의 가치사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은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의 취소로 이어져 문화예술활동의 중단과 심대한 위축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예술인들은 심각한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영세한 문화예술단체가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문화예술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양혜원 예술정책연구실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비대면 콘텐츠의 부상, 예술가치에 대한 재조명

둘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방역강화는 집에서 즐기는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즐기는 비대면 공연·전시·축제가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국립국악원, 국립오페라단 등 국공립예술기관·단체를 중심으로 공연 스트리밍 붐이 일었고, 방탄소년단(BTS)의



온라인 콘서트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조회 수와 수입을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비대면 콘텐츠는 시간적·공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대와 관객 간의 거리를 축소해 생생한 관람을 가능케 하며, 유튜브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관객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비관론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존 오프라인 문화예술이 가지는 현장성, 즉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예술인과 관객이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감동과 경험이 퇴색되고, 몰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 관람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제작비용이 소요되는데 영세한 예술단체의 경우 이러한 제작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중성이 강한 콘서트와 뮤지컬을 제외한 기타 예술분야의 경우 유료화를 통한 수익창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심화로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우리 사회에 ‘코로나 블루’로 명명되는 불안과 우울, 고립을 초래했으며,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등에서 보듯이 다른 집단에 대한 강한 혐오와 갈등의 심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 연대와 회복을 위한 손길을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문화예술이었다.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발코니 콘서트’, 도이치 그라모폰이 기획한 ‘세계 피아노의 날 기념 가상 콘서트’, ‘비긴 어게인 코리아’에서 선보인 ‘드라이브 인 버스킹’, 춘천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100인 라운드테이블’이나 ‘춘천마임 백신 프로젝트’ 등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었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분야의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적·문화적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공연·전시·축제 등에 대한 창작·제작 지원과 조사·연구 지원, 작품 구매, 오프라인 문화예술 활동이 안전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소규모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과 시설·장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유튜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촬영, 조명, 음향 등 기술교육과 저작권 교육, 정보 제공, 전문인력 연계, 저작권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불안, 학대, 혐오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예술 프로젝트’ 또는 ‘예술을 통한 회복 프로젝트’의 추진과 그린 뉴딜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생태계의 위기,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테마로 하는 ‘그린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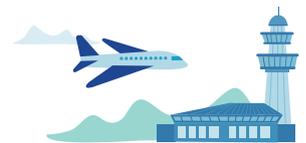
국립항공박물관 앞에서



한강 절경을 품은 강서, 국제적 경제관문도시를 꿈꾸다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국제교류, 첨단경제, 교육문화가 꽃피는 국제적 경제관문도시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4년 만에 국회에 돌아온 진성준 의원은 강서의 발전을 위해 4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서구는 서울 유일의 공항이 위치해 있고, 겸재 정선이 감탄했던 한강의 절경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향교를 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지역이다. 이러한 강서의 명소를 돌아보며 진성준 의원이 꿈꾸는 ‘새로운 강서’에 대해 들어보았다.

항공의 모든 것을 다루는 국립항공박물관…김포공항의 재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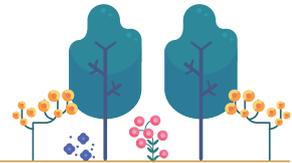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자리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진성준 의원을 처음 만났다. 진 의원은 4층 원형건물인 박물관 외관을 가리키며 “비행기 엔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내에 항공박물관이 여럿 있지만 항공의 역사, 교육, 산업 등 전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은 이곳이 유일하다. 김포공항 비행기 이착륙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B-747 조종·관제 체험, 블랙 이글 탑승 체험 등 여러 체험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지난 7월 5일 개관과 동시에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진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항공역사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며 “개관을 위해 8년 동안 공들인 분들이 많아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공항은 이름과 달리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다. 서울의 관문공항인 셈”이라며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친화형 국제공항’으로 만드는 게 저의



마곡지구에 있는 서울식물원 앞에서



14:30



1호 공약이다. 박물관은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공약실현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국토교통위원회로 자원했다고 한다.

“20년 전 인천공항을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노선이 인천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이제는 인천공항이 자리매김했으니, 김포공항 활성화에 다시 주력해야 할 시기죠. 공항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단순히 비행기를 타러 오는 곳이 아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려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항공 산업이 침체돼 있지만, 그 이후를 위해 김포공항 일대가 강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마곡지구

진성준 의원은 마곡지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식물원은 지난해 개관한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으로, 외부 공원과 호수는 24시간 무

료 개방돼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진 의원은 공원길을 걸으며 마곡의 문화예술 비전을 소개했다. 공약 중 하나였던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인 ‘꽃피는 시민청’ 유치와 더불어 서울식물원과 같은 인근 문화예술시설들을 연계해 문화예술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인근 문화시설을 확대·연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스페이스K 서울미술관과 LG아트센터는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지역의 자랑인 겸재 정선미술관, 허준 박물관 등이 곁에 있어 이미 문화예술유산이 풍부하지요.”

또, 진 의원은 호수공원에서 보이는 여러 기업 건물을 가리키며 “마곡 지구는 김포공항과 함께 강서의 제2도약기를 이끌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만해도 논밭이었던 곳이지만, 마곡첨단산업연구단지에 현재 150여 개 기업 입주 예정 정도로 상전벽해를 이뤘다. 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동력을 키워 강서가 수도 서남



권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어 서울에 남은 유일한 향교인 ‘양천향교’로 향했다. 그는 “향교는 성균관과 더불어 조선 시대에 교육을 담당한 국립학교”라며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서울에서 조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명소”라고 안내했다. 이곳에서 향교지킴이(전교, 典校)도 만날 수 있다. 향교지킴이 유 건 전교는 “양천향교는 1411년경 창건돼 610년간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님을 비롯해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 석전대제도 지내고 있다”며 “지금도 청소년과 성인에게 현인들의 말씀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은 향교 인근에 있는 ‘소악루’에 올랐다. 궁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소악루는 겸재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를 토대로 복원해 겸재가 바라본 한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겸재는 양천현령, 지금의 강서구청장으로 부임해 5

년간 한강의 경치를 그렸지요. ‘강서10경’ 중 1경인 소악루는 한강 하류의 풍광과 북한산, 인왕산이 펼쳐진 곳입니다.”

당·정·청·국회 경험으로 강서 발전에 힘쓸 것

진성준 의원은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19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해 정치·행정 실무를 고루 경험했다. 지난 4년간 지역구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그는 제21대국회에 대한 각오도 남다르다. 진 의원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알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다”며 “운이 좋게도 청와대, 서울시, 당에서 경험이 있는 만큼 강서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정부, 서울시와 잘 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아름다운 지역 강서에 ‘국제적 경제관문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글. 서기정 사진. 유윤기



15:30



양천향교



16:00



소악루에서





황희 의원

지난달 국회보 '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다음 칭찬 주자로 이헌승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을)을 추천했다. 이헌승 의원에 대해 황희 의원은 "의회와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세계흐름에 대한 폭넓은 이해까지 갖추신 분"이라며 "유연함, 충직함, 돌파력을 모두 가지고 계셔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의 장점을 모두 합쳐놓은 국회의원"이라고 칭찬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칭찬받을 만큼 큰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칭찬을 해주시니 참 기분 좋다"고 미소 지었다. 이어 "황희 의원님과과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활동을 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배울 점 많은 훌륭한 의원"이라며 "앞으로도 여야를 떠나 함께 좋은 정치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미국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제15대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해, 제19대국회부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유학시절에는 사회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을 뿐 아니라 윌슨 정치 광고사 인턴으로 근무하며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 선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시장 선거 캠페인 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경험을 통해 얻은 정치 철학이 있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민생을 위해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사사로움 없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첫 국회의원 선거였던 제19대 총선 포스터를 가리키며 "당시 구호도 '정정당당'이었다"고 소개했다.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에 힘쓸 것”

이헌승 의원
미래통합당, 부산 부산진구을



“정치는 모름지기 먹고사는 민생이 우선입니다. 편법이 나 꿈수 없이 솔직하고 당당하게 국민께 다가가는 ‘민생우선의 생활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년간 변함없이 주중 국회, 주말 부산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지역주민과도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화합을 통해 당력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 것

이헌승 의원은 새롭게 시작된 제21대국회의 계획에 대해 묻자 “여의도에서는 당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일체화된 메시지를 표출하는 등 당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고, 지역에서는 지역역점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고향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부산진구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누구보다 부산진구에 대해 잘 아는 토박이라는 그는 “현재 가장 중점사업이 범천동 철도기지 이전사업”이라며 “도심 한가운데 있는 8만 평 규모의 철도정비기지를 이전하기 위해 초선 때부터 8년간 공을 들였다. 다행히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됐는데, 조속히 첫 삽을 뜨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제21대국회 상반기에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게 됐다. 지난 8년간 줄곧 국토위 활동을 해와 관련 현안에 환한 그는 “소통과 화합을 담당하는 역할을 잘해서 일체화된 국토교통정책 메시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토위는 국가경제의 20%를 차지하는 국토교통현안을 다루고 있어 책임이 막중합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심각한 만큼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 정책을 철저히 살피고, 규제 철폐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전해철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헌승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추천했다.

이헌승 의원은 전해철 의원에 대해 “여야를 떠나 모든 사람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며 “따뜻한 인품과 더불어 유머와 위트, 균형감각까지 갖추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며 “말씀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하신다”고 칭찬했다.

“따뜻한 인간미와 리더십을 가진 전해철 의원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의원입니다. 앞으로 더 큰일을 하실 거라 기대되는 만큼,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나갑시다!”

글. 서기정 사진. 김진원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가난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정치”

인	내	천	(人	乃	天)			
사	람	이		곧		하	늘	이	다	.

‘마을공동체 주치의’라 불리며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주도하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이용빈 의원의 좌우명은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이다.

“중학교 3학년 때 책에서 처음 동학농민운동을 접하면서 인내천 사상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천도교에 대해 공부하면서 인내천 사상이 제 인생을 관통하는 중요한 철학이 되었습니다.”

동학혁명과 같은 무장 항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 육사에 다닐 때도 생도 신분으로 서울에 있는 교당에 혼자 다닐 정도로 천도교에 심취했다.

“그러다 신군부의 등장을 보면서 군인의 신분으로는



사람을 살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1년 만에 육사를 그만두고 재수를 해 전남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의대 학생회장을 거쳐 1987년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다.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시민군의 뒤를 따라다니며 현장을 잘 기억해서 후배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지요. 그 후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987년 전남대 최초로 5·18기념행사인 ‘오월제’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아 추진한 것도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생운동 하느라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제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 삶의 바탕에는 언제나 ‘사람이 하늘’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의료 소외계층 돌보며 시민민주주의 고민

1989년 군대를 다녀온 이용빈 의원은 소련의 붕괴와 동서독 통일 등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변혁운동의 방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

“그때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호흡하며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광주 광산구에 병원을 연 이용빈 의원은 의료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한편, 빈곤층 청소년과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에 매진했다. 주치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이

끌어내기 위해 가정의학과 의사회 결성과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을 주도했으며,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설립에 참여한 후 10여 년간 의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료 의료를 진행했다. 또 ‘틱옴키옴네트워크’와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돌봤다.

2013년 광주전남직접민주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 시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신장을 고민하던 이용빈 의원은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로 공유경제 등 사회혁신과 청년 활동가 육성, 시민참여 의제발굴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용빈 의원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풀뿌리 인재영입 1호로 입당해 제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재도전 끝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정치가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생명과 평화를 옹호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법안 등을 챙길 생각입니다. 또 의사로서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틀을 짜는 데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가난한 사람의 편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살아온 삶의 근간이 되어준 인내천 사상을 더욱 깊이 새기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편견·차별 없는 세상 만들고 싶어”

장혜영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대학 자퇴,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유튜버, 장애인 인권운동가... 30대 여성 정치인 장혜영 의원이 걸어온 길이다. 스스로 “타이틀이 너무 많다”고 말할 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장혜영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로 제21대국회에 입성했다. 장애인권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장혜영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장혜영 의원은 “어린 시절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아이

였다”고 회상했다. 딸 셋 가운데 둘째인 그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발달장애인인 동생을 돌볼 때가 많았다고 한다. 동생과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뒷부분이 불룩한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고장 난 뒤 책 읽기에 몰두했다. 집에 있던 책은 모조리 읽었다고 한다.

장혜영 의원은 연세대를 다니다 2011년 졸업을 앞두고 ‘이별선언문’이라는 대자보를 쓰고 공개 자퇴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꺼린다. 대학 졸업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한계 없는 자신을 찾고자 감행했던 일이지만 ‘명문대 출신’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이후 그는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을 17년 만에 시설에서 데려와 함께 살면서 장애인권 활동에 앞장섰다. 2018년 동생과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만들며 영화감독이 됐다. ‘생각 많은 둘째언니’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활동도 하면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비장애인들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장애인인 동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편견·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은 YMCA 한국여성지도자상젊은지도자상,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는 일”

지난해 9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심 대표는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던 그에게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당에서 이어가자고 권유했다. 장혜영 의원은 고민 끝에 그해 10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장 의원은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라는 힘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감독이었던 그는 정치와 영화는 많이 닮았다고 말한다.

“영화와 정치는 둘 다 사람들에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비전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을 모두 같이 상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와 정치는 비슷하죠.”

장혜영 의원은 지난 5월 말 발족한 정의당 혁신위원

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혁신위원회는 제21대 총선 이후 당의 리더십, 방향성을 제시하는 안을 내야 한다”며 “활동 기한인 99일 내에 정의당을 혁신하는 모든 방안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의 동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법안을 함께 발의할 의원 10명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다. 법안 발의에 앞서 모든 국회의원실에 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편지를 띄웠다. 이 법안에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 항목이 나열돼 있다. 장 의원은 “예전에는 내용조차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조목조목 내용을 따지며 반대하는 이들이 생겼다. 이것만 해도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저는 소수정당의 30대,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일을 못하는 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이러한 제 정체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더 당당하게 실력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제 뒤에 나올 소수정당 소속의 청년 여성 의원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런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좀 더 나은 정치문화를 갖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pandemic,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심화되는 불평등, 기후위기 등 각종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도 예측할 수 있는 오래된 갈등에만 파묻히지 말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더 나은 정치문화를 위해 한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그린뉴딜, 코로나19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일시	주최자	토론회명
7. 1	이학영·김성환·안호영·진성준·윤준병·이해식·강은미 의원	그린뉴딜-경제위기·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7. 1	이수진·최연숙 의원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7. 2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배진교 의원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7. 9	추경호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7. 20	조응천·박찬대 의원, 한국방송통신대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토론회
7. 21	임종성·김성원 의원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
7. 23	노웅래·안호영·최종윤 의원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망과 직업교육의 역할

● 그린뉴딜-경제위기· 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이학영·김성환·안호영·진성준·윤준병·이해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7월 1일 ‘그린뉴딜-경제위기·기후위기·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육상생태계, 대기·교통, 여성, 농업 등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그린뉴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기



후위기·생물다양성·환경보건정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언택트(untact, 비대면) 대신 로컬택트(localtact, 지역사회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를 고려해 생태전환에 나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일몰 예정인 도시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전환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부연했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교통 정책과 관련해 “간선철도망과 간선급행버스(BRT) 확대만으로는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명확한 승용차 억제정책이 필요하고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도보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통정책을 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종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인을 대표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24%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를 대비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환경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린뉴딜의 기본인 생태계 보호와 복원 개념이 빠졌다고 지적했으며, 김은희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여성학적 관점을 반영한 외국의 그린뉴딜 사례를 소개했다.

●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7월 1일 ‘코로나 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국가감염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배치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인력 배치수준

강화를 통해 업무량을 감소시키면 이직률이 감소해 배치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환자들이 대다수인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지금부터 중환자실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근무 가능 간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필요 시 일반병동 간호사를 중환자실 간호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장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역할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조화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얻은 교훈은 병원마다 상시적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법정 필수인력으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부장은 또한 “감염병에 대비해 일정 비율의 간호인력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병원별 인력 쿼터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병상과 인력, 물자 확보의 어려움을 실감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체적으로 살펴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며 “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데 주무부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남인순·안호영·서영석·이수진·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7월 2일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1대국회에는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업무 외 질병도 유급병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묶어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이라고 불린다. 남인순 의원은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유급병가를 의무화하고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질병과 부상에 의한 소득 손실을 보전해 국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 방안

했다.

임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이날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적 상병수당제도는 현재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에만 도입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상병수당 도입 예시에 따르면, 아픈 뒤 최대 180일까지 평균소득의 50%를 상병수당으로 보장해주려면 최소 8천55억 원이 필요하다. 임 센터장은 “상병수당제도의 부재는 건강보험체계의 사각지대지만 재정 측면에서 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건강보험체계에서 별도의 상병수당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 적합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종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과 명확한 기준 설정을 위한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7월 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스온·오프라인 이원화 스제재와 처벌 중심의 법제 스불균형성 규제 스그림자규제 남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양분돼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추진체계가 통합됐음에도 여전히 이분법적인 법제가 존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

●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토론회

호 규제와 관련해 “공공보다 민간에 불균등하게 기울어진 규제를 정상화하고, 위축된 민간 자율성을 적절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세훈 변호사는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과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무관청의 다수 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프라이버시 덩불(privacy thicket)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박찬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7월 20일 한국방송통신대와 공동으로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도 언택트(untact,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격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의 대학이 비대면수업으로 학사운영을 할 예정이므로 수업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 한국방송통신대 이러닝학과 교수는 “현재 대학에서는 대면수업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원격수업이 대면수업보다 질이 낮은 대안교육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되, 학생·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강의평가 등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학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수준을 상향해야 한다. 또 ‘중앙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원격수업 평가인증제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원격교육의 확대와 함께 국내 에듀테크(EduTech, 정보통신기술을



●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

활용한 교육) 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현재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케이무크(K-MOOC), e-학습터 등 정부 주도의 교육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더디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원격수업 관련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은 7월 21일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타 부처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협력적·단계적으로 정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현 환경부 사무관은 이날 ‘유역기반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물관련 법안은 환경부 소관 약 57개 종류를 포함해 7개 부처에 약 97종류의 물관련 계획이 존재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관련 계획의 효율성, 정합성, 일관성, 신속성 확보를 위해 법정계획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물이용·환경·안전 분야 등 분야별 계획의 통폐합도 추진한다.

이에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법정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정계획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타 부처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산·학·연 전문가와 타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계획간 연계, 효율화, 실행화가 중요하다.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방안은 기존 수자원분야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의견수렴 미흡, 일괄정비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은 “환경부와 수자원학회는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망과
직업교육의 역할**

모두 유기적인 물관리를 위해 계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세 부사항에서는 상당한 생각 차이를 보여준다”면서 “환경부가 타 부처 계획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할 때 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전제로 하되 개별법령에서의 요구사항,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방식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웅래·안호영·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7월 23일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망과 직업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변화에 대응할 직업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L자형 경기 침체(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든 후 저점 상태에 장시간 머무는 형태)’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업·휴직 등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현희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장은 위기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탄력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래 일자리에 대응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공공 직업교육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현장 재직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예산 확대를 요청했으며, 김민석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훈련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 위기가 모두에게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리. 서기정



제21대국회 개원

제21대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7월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흰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이 시원합니다. 국회는 7월 16일 제21대국회의 문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했습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도 열렸습니다. 🍷

글. 박민선



국회로 온 n번방 사건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종식을 위한 두 걸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가 된 n번방 사건

2019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집중 보도되기 시작한 소위 n번방 사건은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문제의 공론화 배경에는 청년여성모임 리셋(ReSET,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이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2020년 1월 14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요구서를 올렸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그것이다. 이 청원요구서는 10만 명의 국민동의를 가뿐히 받고 국회 전자청원 1호가 되어,¹⁾ 법제사법위원회를 주 위원회로 하고 여성가족위원회를 관련위원회로 하여 정식 회부됐다.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곧장 청원인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2월 17일 저녁 7시경부터 3시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다. 아무런 사전 요구가 없었음에도 준비한 PPT 자료, 발표참여자의 완벽한 역할 분담, 150쪽이 넘는 컬러 설명자료 그리고 질문과 대답 속에서 문제는 점점 명확해져 갔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청년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은 덤이었다.

쏟아지는 법안과 재조명된 법안

청원 이후 국회에는 여성가족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



차인순 수석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1)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전자청원으로 2020년 1월 10일 홈페이지를 열었다. 기존 청원과 달리 국회 의원의 소개 없이 30일의 기간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성립되고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회부된다.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많은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대표적이다. 또 그 이전에 발의됐으나 계속 심사 중인 법률안도 다시 조명을 받게 됐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들을 토대로 논의했고,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빠른 시간 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둘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현행 제11조의 형량을 강화했다. 셋째,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 소개, 구입,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것을 신설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형을 강화했으며,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성폭력, 성착취물 그리고 성매수가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8년 2월 여성가족위원회가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지 2년이 지나도록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는 성인을 엄벌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성매수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소위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해 보호처분하면서 비난해온 지난 법의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바로잡았다.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안전권에 더 많은 관심 필요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자 성인의 제1책무다.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해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와 모든 공동체가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²⁾ 이전 세대에게 디지털 세상은 도구에 불과하거나 비현실의 가상공간이기 쉽다.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바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사건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배경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술기반 세상으로 대전환하는 이 시기에 아동·청소년의 안전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처벌 강화는 아동·청소년 안전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기술기반 사회에 걸맞은 교육과 모니터링, 신속한 신고 및 대응체계,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정책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를 막론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 디지털 네이티브란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이르는 말로 온라인을 소통과 협업의 공간으로 여기는 세대를 가리킨다.

국산밀 자급 제고로 식량 안보 확보

‘밀산업 육성법’

(시행 2020.02.28.)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3kg인 밀은 쌀(59kg) 다음으로 제2의 주식이지만,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밀 수입량은 240만 톤인데 국산밀 생산량은 1만 5천 톤에 불과해 자급률은 1%로 매우 미미하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밀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밀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의 국산밀 수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이에 국산밀의 품질을 향상하고 수요를 확대해 밀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밀산업 육성법’이 2월 말 시행됐다. ‘밀산업 육성법’의 내용과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밀 비축제 시행

‘밀산업 육성법’은 필요할 경우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 시 품질기준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의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도록 했으며,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

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또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박태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장은 “밀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산밀은 설 자리가 없었다. 식량 자급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로, ‘밀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은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군 장병이 먹는 밀가루



와 튀김가루를 수입산에서 전량 국산으로 전환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계기로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의 수출 제한과 물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도 식량 안보를 위해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산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달성(생산량 12만 톤)을 목표로 설정했다.

고품질 국산밀로 수입밀과 차별화해야

국산밀의 육성방안에 대해 박태일 밀연구팀장은 “국산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가격으로, 3~4배의 가격 차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능과 영양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 수입밀과 차별화해야 한다. 또 품질 향상을 통해 국산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규 국산밀산업협회 상임이사는 “밀은 균일한 품질이 중요한데,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조성해 가공업체

가 마음 놓고 국내산 밀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국산밀의 냉해 등 재해를 보상하고 보험도 보장하며 직접지불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우리밀 맥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기업이 라면에 우리밀을 1%라도 넣어줬으면, 떡볶이에 우리밀을 10%만 넣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밀산업 육성에 있어 핵심은 밀 생산자와 가공업체,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균일한 품질의 밀가루 공급이라고 한다.

박태일 밀연구팀장은 이를 위해 제분 및 블렌딩 기술, 품질인증, 국산밀 사용업체 인증 등 단계별 시행 규칙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밀산업 육성법”은 선언적 권고사항으로 이뤄져 있어 규정을 어길 경우 벌칙 조항 및 과태료 등 타 법과 연계해 강제조항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글. 고영선

농촌진흥청 개발

빵 만드는데 최적 제빵용 밀 '황금'

- ☑ 단백질(14%), 글루텐(10%) 함량이 빵 만들기에 적합
- ☑ '조경' 밀에 비해 쓰러짐과 수발이에 강한 편
- ☑ 제빵용 수입밀 대체 효과 기대 • 2022년 보급 예상

농촌진흥청 개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없는 Non-GMO 밀 '오프리'

- ☑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밀 알레르기
- 셀리아병의 원인 물질을 제거한 밀 (국내 밀 금강 × 울그루 교배)
- ☑ 해외 글루텐프리 시장 진출·수출 효과 기대

* 셀리아병 : 소장에서 밀에는 알레르기 질환, 장내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글루텐에 대한 과민반응이 나타남.

농촌진흥청 개발

항산화 활성 높은 검은색 밀 '아리흑'

- ☑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함유. 항산화 효과 일반 밀의 약 10배
- ☑ 색깔 있는 기능성 통밀빵, 쿠키 등에 사용
- ☑ 산업화를 위해 재배단지 확대 예정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밀 품종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와 형법개정안 논란

인도네시아 주재관으로 부임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됐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의 시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저당 잡힌 듯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술과 돼지고기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싸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이곳 자카르타에서는 호사가 되고 만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문화의 특징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2억 명 이상의 무슬림 신자를 보유한 최대 이슬람 국가다. 무슬림에게는 이슬람법이 적용되며 이를 관장하는 종교법원이 따로 있을 정도다. 특히 아체 자치주처럼 샤리아 율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혼외 성관계, 동성애, 음주, 도박 등의 하람(금기)이 엄격히 처벌되고 공개 태형(笞刑)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이슬람인 것은 아니다. 다른 종교도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일부지역에선 다른 종교가 강세를 띠기도 하는데 예컨대 발리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힌두교를 신봉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은연중 성(性)이나 음주와 같은 세속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다. 비무슬림인 화교와 외국인에게 이슬람 문화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다른 아랍국가들과 달리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샤리아 원칙에 따라 사는 무슬림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의 무슬림 단체의 영향력 역시 막강하다.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찾으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가 통과시키려는 형법개정안이 혼전 성관계와 동거, 동성애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성민 인도네시아 입법관



형법개정안(UU-KUHP) 논란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규정을 대부분 차용해 1958년 제정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국가의 독립성과 독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2014년부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형법개정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의 상당수 조항이 샤리아를 반영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민주주의 퇴행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형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전 성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3. 의학적 위급상황이나 강간 사유가 없는 경우, 낙태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핵심적인 쟁점은 형법상 처벌되는 성관계의 범위를 현행의 간통에서 모든 형태의 혼외 성관계로 확대할지 여부다. 일찍이 보수성향의 무슬림 단체들은 혼전 성관계까지 전면 불법화해 달라고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던 터였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일 수 없는 동성에 커플 역시 똑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나아가 이는 외국인과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당초 지난해 9월 24일 본회

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대규모 반대시위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수만 명이 운집한 이번 시위는 1998년 수하르토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시위였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은 무산됐으며, 개정안은 현재까지 의회에 계속 계류중인 상태로 남게 됐다.

향후 전망

반대시위에 참가한 시민과 대학생들은 이번 형법개정안이 여성과 다양한 성(性)·종교 소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무슬림 단체 및 정치권은 국가의 신의 관념과 반대되는 행동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성(性)과 신실한 성(聖) 사이에 절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인도네시아 역시 코로나19라는 쓰나미를 피하지 못하면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그러나 형법개정안은 2020년 하원 입법계획에 계속 남아 있어 언제라도 논란이 재개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국시(國是)로 삼고 있는 ‘다양성 속의 통일(Bhinneka Tunggal Ika)’은 현실에서 실현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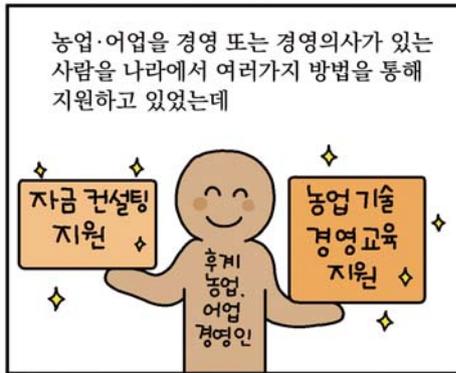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020-03-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

2020-04-29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통일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체육계 인권침해 청문회도 열려



행정안전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창룡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며 “경찰 조직 업무 전반을 인권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야 위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임호선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창룡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위원(정의당)은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기대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만약 경찰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면,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유출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김창룡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며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체육계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청문회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22일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고(故) 최속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경찰청·대한체육회 및 경주시체육회 등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체육분야 전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상습적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지적이 이루어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 25명과 참고인 7명이 참석해 체육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폭력과 가혹행위 등에 관해 증언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 선수의 부친인 최영희씨는 “다시는 최속현 선수와 같이 체육인들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속현법’을 요청한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병훈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철인3종 유망주인 고 최속현 선수가 전 소속팀 관계자들에게 폭행·폭언 당한 사실을 대한체육회 클린 스포츠센터에 신고했으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절차의 문제로 직접 보고 받지 못한 점을 질의했다. 이 위원이 “고 최속현 선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체육회가 시도 체육회에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인권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회장은 “조사 중 보고를 받으면 편견이 들어갈까 봐 직접 보고 대신 결과만 보고받는다.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최형두 위원(미래통합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이번 사건 처리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폭언 등의 잘못된 구태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 앞서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에 불응하기로 한 증인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고, 이날 청문회에 이 가운데 증인 4명이 참석했다.



외교통일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7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는 ‘평양 특사’로 북한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고 단계별 남북관계 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전력 등이 쟁점이 됐다. 탈북민인 태영호 위원(미래통합당)이 이 후보자의 ‘사상 전향’ 여부에 대해 거듭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아무리 청문위원의 질문이어도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진 위원(미래통합당)이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는 과거 문건을 근거로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 된 힘’이라는 구절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남북관계 교착상태에 대해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얼마나 철회하느냐,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가진 핵에 대한 선행이 미국이 내놓을 조건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입증할 병무청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7월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위원들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오전 청문회만 공개되고, 대북 정보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정원 운영 방향과 관련, “저는 후보자 내정 직후 앞으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고 국정원 본연 업무와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학력 위조 의혹, 불법 정치자금 의혹, 대북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하태경 위원(미래통합당)은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편입학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한 의혹이 있으므로 단국대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는 조선대에 다니지 않았다. 광주교대 2년을 다니고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또 모 업체 대표로부터 2015년 5천만 원을 빌린 뒤 5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친구라 빌린 것”이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고액 후원 및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송금 연루설과 관련, 박 후보자는 “저는 북한에의 불법 송금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송금된) 5억 달러에서 정부 돈은 1달러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며 “현대가 북한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는 것으로 저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도, 당시도 어떤 계좌를 통해 현대가 북한으로 송금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글. 박민선

NEWS

7/1 박병석 국회의장, “재난 극복 넘어 소외계층 보호에 국가 역량 모아야 할 시점”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재난 극복을 넘어 이제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 보았듯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우리 국회와 각계가 하나가 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제도와 국가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7/8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 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 참석해 “국회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사회가 오히려 초연결, 초융합을 앞당기는 역설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강국이다. 이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추격형을 선도형으로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이번 포럼 창립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길도 되지만 여야가 경제문제를 비롯한 국가의 일을 위해 협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립심포지엄에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7/9 박병석 국회의장,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7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제21대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라면서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서영

교 행정안전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종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제21대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됐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영춘)는 7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했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창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

NEWS

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제21대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2020년도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국회사무처는 7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발표했다.

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천662명이 접수, 1천994명이 응시해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해, 접수인원 대비 16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행정(일반)에서 2명이 추가 합격해 행정(일반) 26명, 행정(장애) 2명까지 총 28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최종합격자 28명 중 여성합격자는 17명으로 60.7%를 차지, 국회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최근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만 나이)은 25.6세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날 맞아 청소근로자 등 격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27일 국회 본관 청소근로자 대기실을 방문해 현장직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 승강기, 시설관리, 조경 등을 담당하는 456명의 직원들에게 떡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10여만 평에 달하는 국회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음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총장은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곳은 날씨에 고생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며 “안 그래도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점이 더 많으실 것으로 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총장실을 찾아주시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 대표 11명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 8개국 주재관과 화상간담회 개최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은 7월 29일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국외 주재관들과 화상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춘 총장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강조해온 가운데, 주요국 의회의 의사 운영 현황과 의회 차원의 대응 사례를 파악하고 검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미국(워싱턴, 뉴욕, LA)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8개국에서 근무 중인 10명의 주재관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주재관들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원격투표 도입 등 각국 의회의 회의 운영 방식, 의회 청사 내 코로나19 비상 대책, 의회외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의회가 처리한 재정조치와 미국 대선 등 예정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생각보다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해 화상회의와 원격투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각국 의회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과 의회 운영 방식을 상세히 벤치마킹해 우리 국회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외 주재관들이 더욱 분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응 ‘액션플랜’ 수립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김영춘 국회의사무총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국회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력도 매우 클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을 한 단계 발전시켜 위기상황별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 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는 기존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국회 청사 내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책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시나리오는 총 11가지 위기 상황(확진자 발생 4가지, 확진자 접촉 4가지, 의심환자 발생 3가지)을 상정하고 각 상황마다 신고 방법, 격리 판단 기준, 경내 동선 파악 절차, 문자 안내 등 상황전파 체계, 청사 폐쇄 및 방역 소독 범위, 공보 조치 등 시간대별·부서별로 조치해야 할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NEWS

국회 인사

전상수 입법차장(차관급)



- 강릉고, 한국외대 행정학 학사, 법학 석사, 미국 듀크대 법학 박사,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 입법고시 11회, 재경위·법사위 입법조사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담당관, 의사국 의사과장, LA 입법관,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의사국장, 기획조정실장,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사법개혁특위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 수석전문위원

조용복 사무차장(차관급)



- 전북사대부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경희대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입법고시 11회, 국제기구과장, 국제협력과장, 총무과장, 주 뉴욕총영사관 영사(입법관), 외교통일위 입법조사관, 농림수산식품위 입법심의관, 의정연수원장, 기획조정실장,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남성고, 경희대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석사
- 입법고시 12회, 건설교통위 입법조사관, 공보관실 홍보담당관, 의사국 의사과장, LA 입법관,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심의관, 의사국장,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서울 잠실고, 한양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루이스앤클락 로스쿨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뉴욕주)
- 입법고시 13회, 법제사법위 입법조사관, 운영지원과장, 뉴욕 입법관,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심의관, 국제국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문위원,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성남 풍생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미국 조지아 주립대 행정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2회, 재정경제위 입법조사관,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문위원, 법제실장, 환경노동위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진주 동명고, 한국외국어대 영어학 학사, 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3회, 국토해양위·기획재정위 입법조사관,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 전문위원, 헌법개정특별위·사법개혁특별위 전문위원, 정보위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서울 동북고, 중앙대 행정학 학사, 미국 캔자스대 도시계획 석사(MUP)
- 입법고시 12회, 건설위·재경위·건교위·법사위·국회운영위 입법조사관, 기획1담당, 의안과장, 러시아 입법관, 국회의 정연수원장, 국토위·교육위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지동하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재정경제위 입법조사관, 예산결산특별위 입법심의관, 감사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문위원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강릉여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법학 박사, 미국 변호사(뉴욕주)
- 입법고시 13회, 행정안전위 입법조사관, 인사과장, 국제의원연맹(IPU) 파견,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행정안전위 전문위원

홍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수원 수성고, 충북대 농경제과,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
- 입법고시 13회, 대변인실 공보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 총괄팀장,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NEWS

고상근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인천 강화고, 연세대 행정학 학사, 서강대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정책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2회, 법사위·정무위·건교위 입법조사관, 행정법무담당관, 의정종합지원센터장, 경제법제심의관,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농해수위 전문위원, 법제실장

최시역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충북고, 한국외대 인도어학 학사, 고려대 국제경제학 석사, 국방대학원 안전보장대학원
- 입법고시 12회,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정무위·국토교통위 전문위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조선대부속고, 성균관대 영어영문학 학사, 영국 사우스햄튼대 정치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수료
- 의사과 의사담당, 정무위·국회운영위 입법조사관,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정보위 입법심의관, 관리국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문위원

조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서울 여의도고, 서강대 정치외교학 학사,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콜롬비아대 대학원 국제관계 석사
- 입법고시 12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예산담당관·총무과장·관리국장, 기획재정위·정무위·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충남 신평고, 서울대 국민윤리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 교육행정 석사
- 입법고시 13회, 교육위·농림해양수산위 입법조사관, 운영지원과장, 교육문화위 입법심의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문위원, 감사관, 교육위 전문위원, 국회의정연수원장

이상헌 법제실장(관리관)



- 대전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행정학 석사,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2회, 법제사법위·산업자원위 입법조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장, 예산결산특별위 심의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 보건복지위·정무위 전문위원



국회도서관, 재개관 후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대상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7월 27일 재개관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열람석을 축소하고 1일 이용자 수를 제한해, 사전예약제로 평일에만 운영한다.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방문 하루 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용시간을 제한해 개관하므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고 소장 자료는 사전 예약을 받아 서비스한다.

국회도서관은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료실 내 거리 유지를 위해 열람석을 재배치했으며, 사서 데스크와 열람석, 검색대에 비말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서소독기를 추가 배치하며 재개관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보면서 운영 시간과 개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국회 개원을 맞아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술대회는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로 진행됐다. 각 분과에서는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전략, 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

NEWS

향,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경제전환기의 세제 개편방향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의제를 활발히 논의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업무와 보고서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재정경제 분야의 주요 학회가 한데 모여 다양한 공론의 장을 벌인 것은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이래 처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제21대국회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했다. 참가자의 신원 확인과 입장인원 관리를 위한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했고, 행사장 방역·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또한 인원 제한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회방송 녹화중계를 실시했고 유튜브 동영상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국회 개원 및 2020년 제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대한변호



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이원우)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저는 입법부는 입법부다워야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다워야 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출되는 국민들의 주장을 하나로 조정해야 하는 국회가 스스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사법부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경계해야 한다. 행정부는 전문성과 책임성에 입각해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현대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면서 “이 원리를 시대변화에 맞춰 어떻게 해석하고 보완할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축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에 대해 김신화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의 발표와 홍보람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광재 변호사, 윤성현 교수(한양대 정책학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2세션은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김동현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의 발표와 이용재 변호사, 강일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정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3세션은 여운국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의 사회로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에 대해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의 발표와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은주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과대학)의 사회로 플로어 토론 형태로 진행되어 개별 주제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가 전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입법·사법·행정의 세 가지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기능하는 새로운 양상과 그로 인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전반에 대해 실무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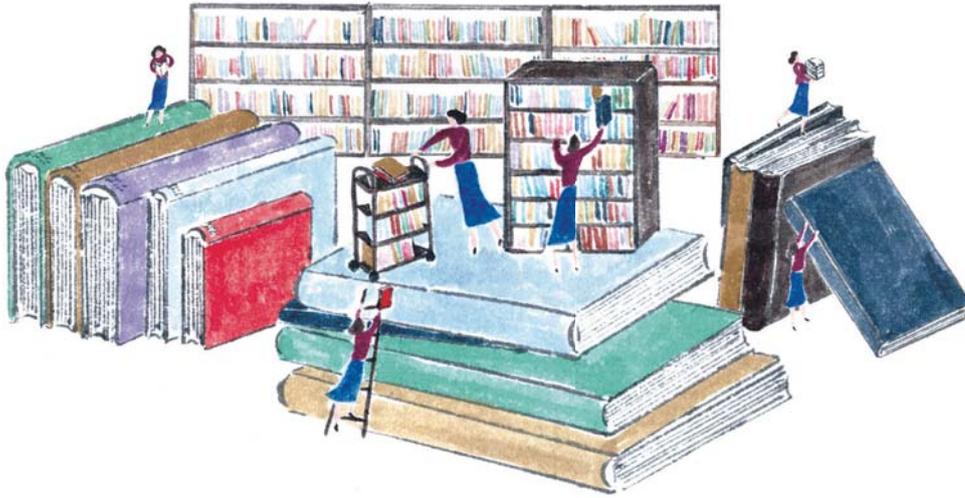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7월 2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회장 송교욱 부산연구원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 및 미래역량의 개발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유·무형 자원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김현곤 미래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미래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 간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연구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행복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대한민국 행복지도’ 홈페이지(www.happykorea.re.kr)를 지난 5월 25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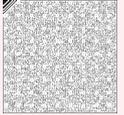
알고 보니, 나는 천생 사서였다



신경숙 기록관리과장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요즘에야 동네마다 공공도서관 하나씩 없는 곳이 없지만 1970년대 한국에선 도서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적외판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세계명작전집, 위인전집 등 몇십 권이 한 질로 묶여 있는 책을 월부로 팔고 다니곤 했다. 엄마가 큰맘 먹고 읽고 싶은 책 한 질을 들여놓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다. 대학은 문헌정보학과(당시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전공 공부도 참 따분하게 느껴졌다. 책에 관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과 독서를 좋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학업을 마치고 사서라는 직업을 갖게 된 이후는 내 일이 너무



나 좋다. 책을 찬찬히 읽기보다는 책 표지나 목차밖에 못 보는 날이 더 많지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늘 가까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외국여행을 가서도 그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은 반드시 들 정도로 도서관 자체를 좋아할뿐더러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도 사랑하는 걸로 봐서 사서는 나의 천직인 것 같다.

나는 1988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국회도서관 채용시험에 합격해 5월에 사서직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의 국회도서관 건물이 막 완공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새 건물로 첫 출근을 한 지도 32년이 되었으니 이 건물도 벌써 서른두 살이 되었나 보다.

국회도서관은 여러모로 다른 여타 도서관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서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인 열람봉사와 그에 수반되는 자료수집, 분류·목록 업무가 일반적인 도서관 업무라면 국회도서관은 그 외에 전자도서관 구축 등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국회의원에 대한 의회·법률정보 서비스 등의 입법활동 지원 업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영구보존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회기록보존소

32년을 근무하면서 자료조직, 열람봉사, 입법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도서관의 웬만한 업무는 다 해 보았고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알 만한 업무’라는 자신감이 생길 즈음, 나로서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국회기록보존소 기록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게 됐다.

국회기록보존소는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

되면서 영구보존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년에 국회사무처에 최초로 설치, 이후 2009년에 국회도서관으로 이관된 도서관의 막내 부서이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이 아니라 낱장의 문서를 이관 또는 수집하여 주제별(철별)로 정리를 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전체 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똑같다. 다만 문서의 특성상 수집 및 정리가 일반도서보다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몇 십년 전의 기록물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생산일자과 제목, 내용을 유추해야 하며, 빛바랜 흑백사진의 촬영 장소와 인물 등을 알아내고자 진땀을 흘리기도 한다.

업무가 많고 힘든 반면 흥미로운 업무도 많다. 2012년에 시작된 국회 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 업무는 지금까지 공식 문서에 기록될 수 없었던 국회의 역대 의장단 및 주요 인사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여 국회의 발자취를 다각적으로 복원하는 의미 있고 흥미로운 작업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용자 중심의 기록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온라인 열람신청으로도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도록 국회기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른 부서에 비하여 아직은 신생 조직이라 몇 가지 정비해야 할 사항은 여전히 있지만, 그동안 여러모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 같다. 지난해 처음 기록관리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해서 날마다 법규를 뒤지고 용어를 익히며 고군분투했는데, 지금은 시나브로 기록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 중이다. 🍯

양극화 시대를 즐겁게 살아내는 법



얼마 전에 냉장고를 바꿔야 할 때가 돼서 보러 갔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냉장고도 있었고 천만 원에 가까운 냉장고는 하나 둘이 아니었다. 비싼 냉장고는 왜 비싸냐고 물으니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혔다. 비싼 냉장고는 냉장고의 두께가 20센티 정도 더 얇아서 주방가구와 나란히 났을 때 별로 안 튀어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냉장고에 붙은 가격표에 천만 원이 넘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는 게 그리 유쾌하진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답해하거나 언짢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미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커진 상황이라면 그렇게 비싼 물건을 열심히 소비라도 해주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부유층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천만 원을 세금으로 걷으려면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닐 텐데 냉장고의 두께를 한 뼉 정도 줄인 것으로 천만 원을 기쁘게 낸다니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기까지 하다.

그 천만 원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월급으로,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냉장고를 설치하는 기사들의 인건비로 잘게 흩어질 것이다. 한 뼉 얇은 냉장고 덕분에 부의 재분배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세상의 부가 점점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

현대 사회는 부자들의 숫자도 많고 그들이 가진 부의 규모도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진 게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꼽히는 워렌 버핏은 그가 가진 100조 원이 넘는 재산으로 약 1천500만 명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하고 빈둥빈둥 놀아도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줄 수 있다.

엄청난 부자들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는 인류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돈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물물교환용 화폐의 기능만 하던 시절에는 곡식이 없으면 굶거나 구걸해야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곡식을 사먹을 수도 있고 빌린 돈으로 땅이나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경기가 나빠지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여유분의 식량을 갖고 있는 부자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는 것뿐이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돈으로 부자들이 가진 식량을 당당하게 사서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돈을 마음껏 찍어낸 결과 워렌 버핏같은 부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은행이 돈을 ‘창조’해서 세상



으로 흘러보내면 그 돈은 먼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신청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내 부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 생각해보면 부자들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사먹고 싶고 갖고 싶은 매력적인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진다.

현대의 부자들은 더 드라마틱하게 빠른 속도로 부가 늘어나는데 그건 은행이라는 심장이 세상에 돈을 계속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풀려나간 돈은 부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간다. 그런데 이걸 사회 구조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부는 매일 수백억 원씩 늘어나는데(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돈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을 매일 이용하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싫으면 아마존을 이용하지 말고 페이스북을 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프 베조스보다 아마존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먼저 괴로워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사서 즐기고 그 결과 매우 소수의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구조가 저금리 시대 불러와

이런 구조를 바꿀 방법은 없다. 정부가 만약 온 세상의 돈을 모두 몰수하고 또는 세금으로 걷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공평하게

나눠주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세상은 지금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바뀔 것이다. 돈은 공평하게 나눠졌더라도 돈 버는 능력은 이미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부자들은 다시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다시 가난해진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구조는 저금리 시대를 불러온다. 금리는 돈의 가격인데 돈이 넘쳐흐르면 돈의 가격이 올라가긴 어렵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면 부유층의 주머니에는 남는 돈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 돈은 점점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된다. 처음에는 그 돈으로 회사도 세우고 투자도 하지만 세상에 투자할 아이템은 한계가 있다. 부자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서민들 소득은 떨어질 것이고 정부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빚을 낼 것이고 그 빚은 은행에서 창조된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늘어나고 그 돈은 언제나 그렇듯 부자들의 주머니로 모일 것이며 그 돈은 결국 또 갈 곳을 못 찾을 것이고 이는 저금리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매우 불편하기는 하지만 지구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순환 시스템의 결과이듯 부의 양극화도 세상이 더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에 더 가깝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부유층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상품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다. 두께가 한뼘 더 얇아서 부엌가구와 라인을 잘 맞출 수 있는 냉장고 같은 물건이 그런 것이다. 🍯

글. 이진우(MBC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열려 있는 청년들의 문화활동 플랫폼, 청년문화허브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2013년 2월 설립된 문화예술 비영리 민간단체 (NGO) 청년문화허브(이하 허브)가 어느새 8년 차가 되었다. 2010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속기관에서 음악축제 팀장을 하고 있던 나는 축제 자원봉사자들과 몇 년에 걸쳐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고 내가 기관을 그만두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허브를 설립하게 되었다.

단체를 설립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멤버들과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청년들이 도시의 주인, 주인공으로 살고 있나?’를 주제로 대화모임을 열었는데 워크숍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기껏해야 주인집에 얹혀사는 하숙생인 것 같다.”

광주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문화 프로젝트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3가지로 요약되던 때였다.

첫째,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집객대상. 둘째, 자원봉사자(라고 불리는 무임금 혹은 저임금 일용인력). 셋째, (임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인) 보조인력.

이건 아니다 싶었다. 왜 우리는 항상 문체부, 시, 기관에서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무조건 받아먹기만 해야 할까? 우리가 주인이라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우리가 직접 차려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문제의식은 곧 ‘뭐 좀 재미있는 것, 말도 안 되는 일들 좀 벌여볼까’ 하는 창의적 근질거림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허브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연, 전시, 문학, 축제, 영화, 여행 등 문화예술을 ‘즐기는 모임’, ‘배



우는 모임’, ‘창작하는 모임’, ‘연결하는 모임’이라는 청년 특화 문화예술 NGO이자 창작그룹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의미 있는 일부터 영동한 일까지 다양한 사업 벌여

그간 단체 활동들을 살펴보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서 말도 안 되는 영동한 일까지 별별 일을 다 해왔다 싶다.

가치 있는 활동을 하나 꼽자면 ‘연대·교류’ 사업인데, ‘허브’라는 이름답게 광주지역 청년 문화단체들의 연대체인 ‘상상실현네트워크’ 설립을 2017년 제안하고 ‘네트워크’가 자리 잡도록 1기 간사단체로서 에너지를 아쉬움 없이 쏟았던 것이다. 광주 청년 문화 연대체의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단위 젊은 문화네트워크를 시작하려고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5개 문화예술 단체와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회비를 거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로 했다.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모임을 취소해야 했지만.

기억나는 활동은 청년들과 함께 말도 안 되는 동아리와 프로젝트를 운영했던 활동이다. 모여서 1시간 넘게 연필만 깎는 ‘장인의 혼을 담은 연필 깎기’ 모임, ‘비 오는 날 미(美)친년’ 프로젝트, ‘공중전화 아트 갤러리’ 등등.

그런데 허브의 활동들을 지금 돌이켜보니 가치 중심의 활동도, 재미 중심의 활동도 다 돈은 안 되는 일이구나 싶다(웃음). 허브가 비영리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전업 활동가들의 활동비, 공

간 운영비 등은 벌어야 단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허브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은 받았지만 후원회원 확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8년에 걸쳐 깨닫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딱히 광주지역에서든, 다른 지역에서든 롤 모델을 발견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제 미래 세대의 문화예술 NGO로서 우리가 오히려 롤 모델이 되어야 할 시점인 듯하다.

청년 문화 활동을 하다보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꿈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 ‘멘토링, 네트워킹 등 비빌 언덕’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다. 전국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정 등은 수도 없이 많은데 청년을 주요 이용자로 하는 ‘청년 문화의 집’ 또는 ‘청년정(노인정과 대비되는)’은 없다. 2010년 전에는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청년들의 필요 및 욕구를 조사하면 항상 일자리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공간’이다. 우리 같은 청년 문화단체가 각 생활거점에서 ‘청년 문화의 집’, 또는 ‘청년정’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제안해보고 싶다. 🍷

불로장생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의 6개월여는 영화팬에게 아주 좋지 못한 시기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영화관은 바이러스를 옮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고, 결국 많은 사람이 영화관에 발길을 끊어야 했다. 영화를 보러 올 사람이 없으니 개봉 예정이던 영화도 거의 대부분 개봉을 미루거나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관객을 찾았다.

나 역시 올해 들어 극장에 가보지 못한 아쉬움을 간간이 TV로 옛날 영화를 보며 달래고 있다. 그러다 최근 오랜만에 새로운 영화를 보았다. 온라인으로 공개한 ‘올드 가드’라는 영화인데, 설정이 흥미롭다.

이른바 ‘올드 가드’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뛰어난 재생 능력이 있어 큰 부상을 입어도 금세 회복하고, 늙지 않아 수백~수천 년을 산다. 즉, 불로장생에다가 빠른 회복이라는 초능력까지 있는 셈이다. 이들의 활약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는 등 약간 오글거리는 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보았다.

늙지 않는 바닷가재

늙어 죽고 싶지 않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로장생을 꿈꾸는 일은 예전부터 있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으려 애를 썼고, 불로장생을 위해

도를 닦는 사람도 있었다. 서양에서는 연금술을 이용해 불로의 묘약을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물론 이 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한.

현대에 들어서는 과학으로 노화를 막아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늙지만 않으면 그것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아마 ‘텔로미어(telomere)’일 것이다. ‘올드 가드’에서도 지나가듯이 텔로미어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몸을 이루는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그 안에 염색체가 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줄어든다. 그러다가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는다. 세포가 분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모든 동물이 그런 건 아니다. 요리 재료로도 쓰는 바닷가재는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다. 늙어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바닷가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혀 죽기도 하고, 덩치가 너무 커지면 탈피하는 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죽기도 한다. 우리 인간은 탈피할 필요가 없으니 만약 바닷가재 같은 능력이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멸의 세포

영화에서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못된 과학자가 불로장생 약을 만들기 위해 주인공 일행을 납치한다. 그 와중에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짓은 안 하더라도 만약 불사의 존재가 있다면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은 과학자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세포 중에도 죽지 않는 세포가 있긴 하다. 바로 암세포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분열을 멈추지 않는다. 분열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잠식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헬라 세포’다. 1951년 미국의 헨리에타 랙스라는 자궁경부암 환자에게서 떼어낸 암세포를 시험관에서 기른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의 실험실에 살아 있다. 인간의 세포를 시험관에서 기르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헬라 세포는 채취 이후로 무한히 증식하며, 소아마비 백신 개발 실험에 쓰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연구에 쓰여왔다. 암은 물론이고 약이나 독성 물질, 방사능, 화장품 등이 인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쓰인다. 지금까지 증식한 헬라 세포의 무게는 5천만 톤에 달한다.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작은 세포가 이제 그 사람 자체보다 훨씬 더 커진 것이다.

다른 동물에게 불로장생의 힌트가 있을까

그러나 암세포는 너무 견잡을 수 없이 증식해 사람을 죽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사람 몸을 암세포 덩어리로 만들어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바닷가재의 사례처럼 과학자들은 다양한 동물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려 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사는 설치류인 벌거숭이두더지쥐는 암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 노화에도 내성이 있어 수명이 보통 쥐의 10배가 넘는다. 사람으로 치면 수백년을 사는 셈이다.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카이스트와 포스텍 연구진은 예쁜꼬마선충이라는 작은 벌레에서 수명 연장을 돕는 단백질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특정 효소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의 양을 조절해 선충의 수명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노화의 비밀을 밝혀낸다면 수정란의 유전자를 편집해 죽지 않는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랜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일 텐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일지는 쉽사리 판단되지 않는다. 🍷

글. 고희관(과학칼럼니스트)



청동기시대의 정치경제학... 강화 부근리 고인돌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고인돌. 청동기시대의 북방식 고인돌이다.

남한에만 2만 9천여 기, 한반도 전체에 4만여 기. 전 세계 고인돌의 40%.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고인돌의 나라’, ‘고인돌의 세계적 보고’라고 부른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무덤이다. 돌을 꺾어

만들었다고 해서 고인돌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지석묘(支石墓)다. 유럽의 고인돌은 대략 기원전 50세기~기원전 40세기에 조성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그보다는 좀 늦다. 출토 유물의 연대로 보아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청동기시대에 조성됐다.



고인들은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인천 강화군과 전북 고창군, 전남 화순군 일대에 밀집돼 있다. 그 엄청난 양과 중요성에 힘입어 세 지역의 지식묘군은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고인들은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蓋石式)으로 나뉜다. 탁자식은 받침돌을 높게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그 모양이 탁자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탁자식은 주로 한강 이북에 분포하기 때문에 북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둑판식은 작은 받침돌을 세우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마치 바둑판을 연상시킨다. 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방식이라고도 한다. 개석식은 아예 받침돌이 없다. 땅 속에 무덤방(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개석)을 올려놓은 것이다. 언뜻 보면 무덤이라기보다 그냥 커다란 돌덩이 같다.

무거운 고인돌, 어떻게 옮겼을까

이 땅의 수많은 고인돌 가운데 가장 멋진 것을 꼽으라면 단연 인천 강화군 부근리 고인돌이다. 사적 137호인 이 고인돌은 웅장하면서도 날렵한 모습이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설치미술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까이 다가가면 거대하고 육중하다. 이 고인돌의 높이는 2.6m로, 남한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 가운데 가장 큰 편에 속한다. 화강암 덮개돌은 길이 6.5m, 너비 5.2m, 두께 1.2m, 2개의 받침돌은 길이 4.5~4.6m, 너비 1.4m, 두께 0.66~0.8m다. 덮개돌과 받침돌의 무게는 모두 합쳐 100톤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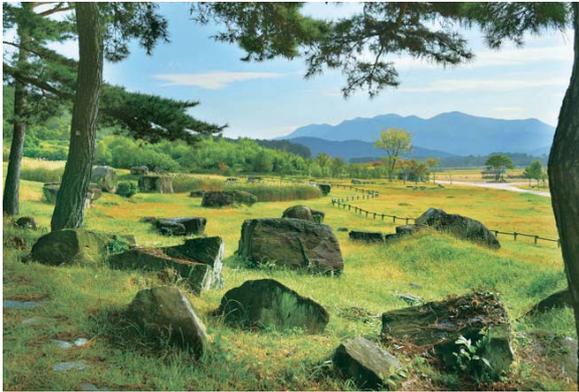
고인돌을 보고 있노라면 궁금증이 몰려온다. 수천 년

전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그 무거운 돌을 과연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옮겼을까. 고고학자들의 추론을 따라가 보자.

첫째, 돌의 채집. 바위에 구멍을 낸 뒤 그 구멍에 나무를 켜기처럼 박는다. 그리고 그 나무에 물을 붓는다. 나무가 물을 먹으면 퉁퉁 불어나게 되고 그 팽창력이 바위를 압박한다. 그럼 바위는 나무의 팽창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깨지고 만다. 실제 고인돌의 덮개돌을 보면 가장자리에 구멍의 흔적이 발견된다. 고고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약 1.5톤의 바위를 떼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바위를 떼어내면 바위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비교적 매끈하게 다듬었을 것이다.

둘째, 돌의 운반. 바닥에 지름 10cm 정도의 통나무를 철도 레일처럼 두 줄로 평행하게 깎는다. 그 위에 또 다른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깔아놓는다. 그 통나무 위에 바위를 올려놓고 줄로 묶어 앞에서 끌어당긴다. 맨 아래 두 줄의 통나무는 철로 역할을 하고, 그 위에 가로질러 놓은 통나무들이 바퀴 역할을 하면서 바위가 움직이게 된다. 전북 진안군 용담댐 수몰지구의 청동기유적에선 통나무를 이용해 돌을 옮긴 흔적(통나무 바퀴의 흔적)이 실제로 확인됐다.

셋째, 받침돌 위에 덮개돌 올리기. 먼저 받침돌을 세운다. 이어 흙을 쌓아 받침돌을 덮어 썬다. 둥근 무덤 모양 또는 작은 동산 모양의 흙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경사면을 이용해 덮개돌을 끌어 올린다. 덮개돌을 받침돌 위쪽으로 올려놓으면 나머지 흙을 다시 제거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탁자식 고인돌이 된다. 실



전북 고창의 고인돌군(사진=고창군청 홈페이지)

제로 고인돌의 덮개돌과 받침돌 사이를 눈여겨보면 압착된 흙이 발견되곤 한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돌을 옮기는 데 과연 몇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을까. 고대 이집트의 사료를 보면, 람세스 4세 때 약 60톤 무게의 석조물을 옮기는 데 90명의 남자가 동원됐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국내외 고고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동근 통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약 1톤 무게의 돌을 올려 옮기는 데에는 대략 10명의 성인 남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강화 부근리 고인돌에 적용해보자. 덮개돌과 받침돌 등 거대한 돌 3개의 무게는 약 100톤이니 이것들을 옮기는 데 1천여 명의 남자가 동원되었을 것이다. 전북 고창 운곡리에 있는 21호 지석묘의 경우, 돌의 무게가 약 297톤이니 2천97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됐을 것이다. 흥미로운 추론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보자. 청동기시대, 거대한 돌을

옮기는 데 동원된 사람은 대부분 젊은 남자였을 것이다. 그럼, 당시 한 가구에 젊은 남자가 한 명 정도였으며 가구당 5명이 함께 살았다고 가정해보자. 고인돌을 만드는 데 100명이 동원되었다면 그 마을 주민은 500명이라는 얘기가 된다. 1천 명이 동원됐으면 그 마을 주민은 5천 명이었던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강화 부근리 고인돌로 돌아가보자. 1천 명이 동원됐으니 청동기시대 강화 부근리 일대에는 최소한 5천여 명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인돌의 주인공, 즉 무덤에 묻힌 사람은 5천여 명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경제력과 그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즉 고인돌 무덤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이 아닌 지배층이었다는 말이 된다.

고인돌의 무덤방에서는 무기류(석검, 화살촉, 청동검 등), 토기류, 각종 장신구와 청동기 등이 출토된다. 무덤의 주인공들이 살아 있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다. 대부분 권력과 위상을 상징한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동원할 힘을 갖추었던 사람.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살아 남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권위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죽은 자가 저승에서도 부와 권력과 영생을 누리기를 기원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함께 매장한 것이다.

언뜻 보면 그저 커다란 돌덩이 몇 개에 불과한 고인돌. 하지만 여기에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정치경제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볼수록 매력적인 돌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그런 고인돌의 보고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오유경의 인생책방

책과 정치,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간

우리 시대
정치인들이 꼽은
내 인생의 책



오늘 뭐 읽지?
북마스터가 추천하는
화제의 책



진행 오유경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방송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경기도 파주시 반구정

황희와 이이의 이야기가 깃든 반구정길을 걷다

경기도 파주시 반구정길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해 조선 세종 때 영의정이 되어 18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던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벗 삼아 지내던 반구정.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리던 이이의 화석정. 두 곳을 잇는 12km 길에 반구정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원래는 화석정에서 1km 정도 떨어진 율곡습지공원까지 가야 하는데, 화석정에서 발길을 멈췄다. 화석정에 있는 시비에는 이이가 8세에 지은 시가 새겨져 있다.



갈매기를 벗 삼아 임진강을 바라보던 황희

과주에 도착할 무렵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옅은 먹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고 미동도 없었다. 쉽게 그칠 비가 아니었다. 반구정도 축축하게 비에 젖고 있었다. 썰물 때에 반구정에도 갈매기가 날아온다던 허목의 글 ‘반구정기’를 생각하며 임진강이 보이는 반구정으로 올라갔다. 갈매기는 보이지 않았고, 정자에서 비를 피하며 황희를 생각했다.

황희는 고려시대인 1389년(공양왕 1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 무렵 국제 정세는 격동의 시대였다. 1350년대부터 1360년대에 이르는 시기 원나라에 반대하는 홍건적이 중국에서 일어났다. 원나라 군대에 쫓긴 홍건적은 고려를 여러 차례 침략했다. 원나라는 망하고 1368년에 명나라가 세워졌다. 왜는 끊임없이 고려의 남쪽을 괴롭혔다.

국내적으로는 권문세족의 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면서 왕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시대였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신진사대부의 급진세력은 홍건적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도 했으며, 남쪽의 왜구까지 토벌한 당대의 영웅 이성계와 뜻

을 같이하면서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세웠다.

황희는 이성계가 조선의 문을 열 때 고려의 충신들과 두문동에 들어가 은거했다. 결국 조선 태조 3년에 조선의 조정에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1431년(세종 13년)에 영의정이 되어 18년 동안 세종과 함께 조선의 기틀을 세웠다. 조선 초기, 환난의 정국에서 파직과 복직, 은거와 유배를 거치면서도 정치적 생명을 이어왔던 황희는 세종 시절을 맞아 정국을 이끌었다.

1449년(세종 31년) 황희가 87세의 나이로 영의정을 사임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후 여생을 보낸 곳이 반구정이다. 노구를 이끌고 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펼친 자신의 정치 인생을 황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 마리 갈매기를 벗 삼아 노닐던 그의 시간이 궁금했다. 반구정의 원래 이름은 낙하정이었는데 갈매기가 많아 ‘갈매기를 벗 삼는 정자’라고 해서 반구정(伴鷗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반구정 임진강역 장산전망대 화석정



반구정 바로 옆에 임진강이 흐른다.

푸른 눈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다

반구정을 뒤로하고 걷는다. 옛 도로 옆 도랑에서 도랑 물소리가 들린다. 이슬비는 계속 내린다. 열기 머금은 습기에 풀 향이 짙다.

건널목을 건너면서 바라본 시선에 경의중앙선 임진강역이 보였다. 도로를 건너기 전에 기차길이 있는 뒤를 돌아봤다. 길가에 핀 키 작은 꽃들을 눈에 넣고 다시 걷는다. 강아지풀과 개망초꽃이 피어난 논길을 걷는다. 푸른 눈이 비에 젖는다. 싱그럽다. 그곳에서 함께 비를 맞으며 숨 쉬는 모든 생명이 푸르러지는 것 같았다.

논 옆에 세워둔 자전거는 푸른 눈 가운데서 허리 굽혀 일하는 사람의 것일 것이다. 흙 묻은 샅 한 자루가 자전거 짐받이 옆에 꽂혀 있었다. 저 사람은 언제부터 저렇게 등을 굽히고 푸르름에 묻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옆에 하얀 새 몇 마리가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농부의 시간과 새의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눈에서 만났다.

장산1리에 도착했다.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 잠시 쉬며 준비해간 음료수를 마신다.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

다. 어디선가 밥 짓는 향기가 났다. 향기를 따라가 밥 한 숟 청하고 싶었지만 그냥 돌아섰다.

맨밭골을 지날 무렵 빗줄기가 굵어졌다. 이곳에서는 백로가 떼를 지어 날아다닌다. 그 큰 날개를 휘적휘적 저으며 예닐곱 마리의 백로가 푸른 눈 위를 날아올라 저만치 가서 앉는다. 그들의 비행은 우아하다. 비를 맞고 서서 그들의 우아한 비행을 다 보고 나서야 장산전망대로 출발할 수 있었다.

신동 이울곡의 '화석정사'를 보다

맨밭골에서 장산전망대로 올라간다. 빗줄기가 제법 굵고 세차다. 한여름 소나기 같다. 온몸이 다 젖었다. 오히려 그렇게 걷는 편이 상쾌하고 통쾌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검은 구름이 낮게 드리웠고 장대비가 먼 데 풍경을 뿌연게 가리고 있었다. 장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임진강의 섬, 초평도가 흐릿하게 보인다.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숲길이 끝나는 곳에서 도로를 만났다. 도로를 건너 마을로 들어갔다. 장단콩으로 두부를 빻는다는 식당으로



경의중앙선 기차길



장산전망대에서 본 임진강. 가운데 초평도가 보인다.



화석정 정자와 나무



들어갔다. 맑은 순두부에 양념간장을 넣어 먹는 요리였다. 마을을 벗어나 화석정 쪽으로 걸었다. 화석정에 도착할 무렵 비는 잦아들었지만 그치지는 않았다.

화석정 정자와 커다란 나무가 어울린 풍경이 방점을 찍는다. 정자 마당가에 서면 유장하게 흐르는 임진강이 보인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두 그루 나무가 있으니, 하나는 600년 된 느티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270년 된 향나무다.

숲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드니/시인의 시상이
끝이 없구나/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서리 맞은 단풍은 햇별을 향해 붉구나//산
위에는 둥근 달이 떠오르고/강은 만리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머금었네/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
으로 날아가는고?/울고 가는 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 이울곡이 8세에 지은 <화석정시>

화석정 정자 옆에 울곡 이이가 8세에 지은 ‘화석정시’가 돌에 새겨졌다. 화석정의 가을 정취와 어린 이이의 마음이 잘 어우러졌다. 화석정은 울곡 이이의 5대조인 이명신이 세운 정자다. 이이는 나랏일을 하면서도 여건이 되는 대로 이곳을 찾았고,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이곳에서 학문을 논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지냈다.

조선 초기 사람으로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인 신승선이 임진나루 남쪽에 래소정을 짓고 풍경을 즐겼다. 숙종 임금 때 사람 남용익이 래소정에서 임진강의 아름다운 경치 8곡을 노래했다. 그중 제1경이 ‘화석정춘-화석정의 봄’이다.

화석정에 새로 핀 꽃을 홀로 감상하는 나그네 유방을 온 세상이 알지 못하니 탄식한들 선생(울곡)이 가신 뒤 봄이라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접사가 붙어서 된 말 바로 쓰기



한글 맞춤법 제4장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는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우선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은 접사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접사가 생산적이면 어법대로 적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규칙적인 현상보다 불규칙적인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접사가 생산적이라도 본뜻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소리대로 적고 접사가 생산적이지 않더라도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사와 붙어서 된 말은 어법대로 적는다. 그런가 하면 겹받침 어근의 경우 앞의 받침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고, 뒤의 받침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법대로 적는다.

우선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을 적을 때는 접사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접사의 생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법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달맞이’와 ‘죽음’은 접사의 생산성이 강한 ‘-이’와 ‘-음’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어법대로 적지만, ‘달마중’과 ‘주검’은 접사의 생산성이 약한 ‘-움’과 ‘-엄’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굳이’와 ‘익히’는 접사의 생산성이 강한 ‘-이’와 ‘-히’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어법대로 적지만, ‘너무’와 ‘자주’는 접사의 생산성이 약

한 ‘-우’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그다음으로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을 적을 때는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접사의 생산성이 강한 말이라도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는 말과 본뜻이 유지되지 않는 말의 표기는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접사의 생산성이 강한 ‘-이’가 붙은 ‘귀걸이’와 ‘옷걸이(옷을 걸어 두도록 만든 물건)’는 ‘걸다’라는 본뜻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어법대로 적지만, ‘볼거리(유행성 이차선염)’와 ‘옷거리(옷을 입은 모양새)’는 ‘걸다’라는 본뜻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는다.

또한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을 적을 때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자음으로 시작된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은 접사의 생산성이 약하거나 어근의 본뜻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어법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파리’와 ‘잎사귀’는 원칙적으로 어근의 본뜻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접사의 생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이파리’와 달리 ‘잎사귀’는 자음으로 시작된 접사 ‘-사귀’가 붙어서 된 말이기 때문에 어법대로 적어야 한다.

넌따랏다(○) 넓적하다(○)

끝으로 접사가 붙어서 된 말을 적을 때 가장 까다로운 것은 겹받침 어근이 사용된 경우이다. 겹받침 어근의 경우, 앞의 받침이 발음되면 소리대로 적고, 뒤의 받침이 발음되면 어법대로 적으면 된다. 예를 들어 ‘넌다’에 접사가 붙어서 된 말 중에 [넌따라타]와 [넌찌카다]처럼 앞의 받침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넌따랏다’와 ‘넌쩍하다’로 적어야 하지만, [넌찌카다], [넌쭈카다]처럼 뒤의 받침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법대로 ‘넌적하다’와 ‘넌죽하다’로 적어야 한다. 🍵

글. 김형주(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제21대국회 개원식, 제헌절 경축식 열려

2020. 7. 1. ~ 7. 31.

- 1 • 민주노동총 불참에 노사정 합의 무산
• 문재인 대통령 “미 대선 전 북미간 대화하도록 전력 다 할 것”
- 2 •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 ‘1주택 남기고 처분’ 강력 권고
• 문재인 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강화…주택공급 확대” 지시
- 3 • 북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 열고 코로나 논의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부동산 불안 국민께 송구…규제로는 한계”
•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
• ‘코로나 극복’ 35.1조 원 규모 3차 추경 국회 통과
- 4 • 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마주 앉을 필요 없어”
- 6 • 법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하겠다”
• 대검 “특임검사 필요…총장 지휘배제 위법” 검사장들 의견 공개
- 7 • 미,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 취소·발급 중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당 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
- 8 • 미, ‘코로나19 대응 불만’ WHO 탈퇴 공식통보
• 미 상무부, 한국산 냉면강판에 반덤핑 관세 최종 면제
- 9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상고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 1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로
•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13 •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열려
- 14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 개 창출
•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1.5% 인상
•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방위백서에 공사 초치해 항의
- 15 • 정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주택공급 확대 TF 가동
- 16 • 제21대국회 개원식…문재인 대통령 연설
•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 선출
- 17 • 국회,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 20 •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21 •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세계 10번째
• 국무회의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 22 • 국회 본회의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 23 • 외교통일위원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24 •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 27 •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 돌입
- 29 •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의결
- 30 • 국회, 본회의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정리. 김현아

낮선 여름

광복 75주년을 맞은 2020년 8월 너무 낯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름나기가 혹독한 듯합니다. 한여름 무더위 쉽터였던 경로당들이 반년간 봉인됐음이 목격되고는 합니다. 일부는 최근 재개방되고 있죠. 개장 안한 한강 야외수영장, 예년과 다른 경기장 모습 등 익숙지 않은 풍경이 넘쳐납니다.

국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반년인데 위력은 다시 강해졌습니다. 마스크 쓰는 여름은 불편합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위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조차 바이러스 앞에 무참하게 무너져 더 힘든 여름입니다. 여전히 국제선 항공기는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중·고나 대학교는 교사나 학생, 관계자들의 대면수업이 제한되며 어려움이 크죠. 대면 접촉이 많은 각종 종교 활동도 정상화가 멀어 보입니다. 국면이 의외로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타격이 도드라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영리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도서관 열람, 참관, 문화행사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7월 17일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은 예년의 5분의 1 정도인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그것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35분 여로 단축해 진행했습니다. 경축 공연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죠. 상상도 못했던 생경한 풍경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긴장이 높아지는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정치가 그래야겠지요.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위기에서 선국후당(先國後黨) 정신으로 K-민주주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 국익우선정치 실현이 주목됩니다.

국회홍보출판위원회도 구성원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지도부 교체에 수반하는 변화지요. 회의는 위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국회보 8월호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와 분야별 과제를 다루며 코로나 이후도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여름, 어떻게든 지나가겠지요.

북한산 정릉 쪽 입구에는 귀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를 ‘백색소음’이라며 숲속에서 계곡물 소리 뿐 아니라 바람소리, 곤충들과 동물들의 울음소리 등을 들으며 잠시 쉬어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코로나 스트레스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



이춘규
문화소통기획관·편집인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 나는 이야기합니다. 〉

- 기 간 : 2020. 8. 3.(월) ~ 8. 28.(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작 가 : 소냐 은영 반덴 베르흐
- 전 시 품 : 〈The caterpillar〉 등 회화 16점
- 문 의 : 국회사무처 문화소통담당관실 02-6788-2296

